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우조선해양, '컨'선 4척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Zodiac Maritime으로부터 15,000TEU급 Neo panamax 컨테이너선 옵션분을 수주함. 계약금액은 총 5.2억달러이며 2024년부터 인도됨. (선박뉴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가시밭길

EC(유럽연합 집행위)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EU 승인이 없어도 합병이 무효는 아니지만 EU라는 거대 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EU는 한국조선해양이 사업 일부를 다른 기업에 매각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할 것을 요구 중인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Chinese yard in pact to build world's first CO2 carriers for Norwegian carbon capture scheme

Equinor, Shell, TotalEnergies 등이 합작 설립한 Northern Lights가 7,500CBM급 액화 CO2운반선 2척을 중국 Dalian Shipbuilding(DSIC)에 발주함. 인도기한은 2024년 중반까지임. 풍력보조 추진 시스템과 공기 유통 장치 등 기술로 탄소밀집도를 기존 선박 대비 -34% 절감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보도됨. (Upstream)

슬롯 쟁탈전 소강상태

2024년 slot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만 선기가 많이 올라 쟁탈전은 벌어지지 않고 있음. 2024년 인도예정 Capesize 벌크선을 발주하려면 중국이나 일본 조선소로 가야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Oakland Port Seeks to Recover Lost Shipping Services

California Oakland port가 항만적체로 몇달간 중단됐던 운송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보도됨. CMA CGM은 주간 중국-Oakland 노선을 재개, Mediterranean Shipping CO는 Oakland-동남아 노선을 시작함. (The Wall Street Journal)

헝다, 달러채 이자 또 못내…中 기업 연쇄 유동성 위기 확산

유동성 위기로 '파산설'이 들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이 달러채 이자를 또 지급하지 못함. 11일 헝다그룹은 회사채 3건에 대해 이자 1.5억 달러를 지급해야했음.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채무불이행은 아니지만, 헝다그룹은 23일, 29일 두 차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바 있음. (한국경제)